

북

미모는 부·권력·성공에 어떤 영향 미쳤나

미모의 역사

아서 마워 지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외모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타고난 사람들은 특별한 관심을 받고, 때로는 솔배와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잘생긴 사람들이 누리는 불공평한 이익과 못생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지독한 불이익을 두고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 이처럼 역사 아래 미모(아름다움·Beauty)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영국 역사학자 아서 마워(1936~2006)은 '미모의 역사'에서 서구 세계에서 미모의 기준과 의미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어떤 점에서 변하지 않았는지 살폈다.

저자는 먼저 "시대에 따라 아름다움의 기준은 다르다"는 일반 상식과 달리 서구 세계에서 미모의 기준이 '비교적 일정'하고 '비교적 보편적'이었다는 주장을 펼친다.

물론, 마흔 체형이 예쁜 몸매로 각광받는 요즘과는 달리 통통한 몸이나 긴 목을 높이 평가하는 시절이 있었고 현재도 일부 국가에서는 그러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아름다움'의 관점이 아닌 '부와 지위의 상징'으로 찬양하는 것이라면서 논의로 친다.

그때마다 달라졌던 스타일의 유행도 역시 논의에서 제외했다. 저자는 "시시각각 변하는 유행은 덜 아름다운 부분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는 방식일 뿐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 미모'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렇게 일정하고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저자는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삶이 미모의 영향을 받아온 역사적 사례를 들어주며 아름다움의 의미와 관점에 대해 분석한다.

플라톤과 아우구스티스 등 철학자들이 바라본 인간의 아름다움에서 출발하여 왕과 그의 아름다운 정부, 미모를 통해 성을 파는 고급 매춘부, 세기의 미남과 미녀 배우들, 위대한 정치가 등 외모가 성공과 실패에, 부와 사회적 출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추적했다.

이 중 저자가 주목한 것은 영상매체의 발달에 따라 외모가 점점 성적 거래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신체적 재능'으로 여겨지게 됐다는 점이다. 옛날에는 미인들이 성관계를 담보로 권력을 얻었다면, 현대에서는 이를다운 여배우들이 영화나 광고를 찍어 권력자에 대한 성적 제공 없이도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렇듯 다소 상반된 논리를 펴면서도 저자는 "미모는 하나님의 재능"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한결같이 주장한다.

"아름다운 몸은 언제나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현대에 와서는 이런 매력이 더욱



'최고의 섹시심'으로 불려진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 수많은 스캔들을 뒤로하고 36세의 나이에 약물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다.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유체적 파시즘'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파시즘이라는 단어는 오용되기 쉽고 진실은 직시하기 어렵다.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라고 과감히 목소리를 높인다.

자칫, 편향된 사고라면 공격당할 위험이 있고 정치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발언일 수도 있으나 솔직하고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주장이다. 원제 'A History of Human Beauty'. 〈말·글 빛님〉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인생에서 일은 무엇인가

직업에서 성공의 비결은



철학자 겸 저술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탁선산(53)씨가 '직업과 인생에 관한 고찰'을 담은 책 두 권을 내놓았다.

1권 '성적은 짧고 직업은 길다'는 일의 의미와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귀띔해주며, 2권 '준비가 알차면 직업이 즐겁다'는 직업을 잘 찾도록 준비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책은 여러 차례의 진로 선선파와 기나긴 고민 끝에 비로소 직업의 세계에 들어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에서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창비·각권 9천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경제학이 숨겨온...

피트 런 지음



백화점에 옷을 사려 갔다면, 예산 범위에서 자신의 행복을 최대화해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다. 하지만 막상 쇼핑을 시작하면 인간의 마음은 '합리성'에서 벗어나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때론 '지름신'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어버리곤 한다. 합리적인 인간이 왜 땅을 치며 후회할 짓을 하는 걸까?

BBC 기자 출신 경제학자 피트 런의 저서 '경제학이 숨겨온 6가지 거짓말'은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해 준다.

'기업 이윤 극대화 추구'는 거짓말이다

피트 런 지음

저자는 "이는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의외로 합리적 이지도 효율적 이지도 않기 때 문이라는 것.

행동경제학에 바탕을 둔 책은 또한 기준의 경제학이 주장해온 6가지 전제 즉 ▲인간은 이익을 추구한다 ▲세상은 예측 가능하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아무리 광고해도 소용없다 ▲조직은 합리적이다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를 과감하게 부정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돈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인간은 이익을 추구한다), 비싼 차 값에도 불구하고 공정부여 카페를 찾거나(인간은 이기적이다), 광고에 속임수임을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아무리 광고해도 소용없다)들.

이처럼 지금까지의 경제학은 인간의 마음을 전혀 해아리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저자는 또 '현실 세계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인간에게는 '본능'과 '충동'과 같은 심리가 존재하는데 기준의 이론에서는 단지 효율성과 합리성에만 근거해 '경제적인 인간이 가장 행복한 인간'이라며 인간을 옥죄워야"고 반박한다.

저자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 속까지 들여다보는 더 나은 경제학이며, 그 경제학은 불확실한 세계에서 우리가 이해롭게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고 역력한다.

〈호름출판·1만4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뒤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착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경매에 관한 모든 상금
062)236-3400

근린시설/점포 대표이사 010-7570-7525

주택시설/상가 손해연세 010-9811-2817

부동산 경매 062)236-2142

부동산 경매 062)236-2142